

한나라 광주서 첫 대선후보 정책토론...경선 스타트



29일 오후 광주 5·18기념문화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경제분야 정책비전대회에서 당내 경선 주자들이 정책 토론회에 앞서 손을 잡고 당원들의 지지에 답례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진화·원희룡 의원, 박근혜 전 대표, 이명박 전 서울시장, 홍준표 의원.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李 “대운하로 일자리 창출” 朴 “5년내 선진국 만들 것”

한나라당이 29일 오후 광주 5·18 기념문화관에서 이명박 전 서울시장, 박근혜 전 대표, 홍준표·원희룡·고진화 의원 등 5명의 당 대선주자들간 경제 분야 정책토론회를 갖고 80여일간의 길고 긴 경선 레이스의 첫발을 내디뎠다. <관련기사 3·4면> 이날 첫 정책토론회에서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이 전 시장은 ‘대세론 굳히기’, 박 전 대표는 ‘지지를 역전’의 고구보 마련을 위해 불꽃

튀는 정책대결을 벌였다. 이 전 시장은 기초연설에서 “지난 10년간 늘어난 것은 가계부채고 줄어든 것은 경제성장률이었다”며 “7% 성장, 4만달러 소득, 7대 경제강국 진입의 ‘대한민국 747’ 정책과 한반도 대운하 공약을 통해 우리 경제를 살려 놓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우리 경제의 큰 병을 고치는 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면서 “‘줄푸세’(세금·정부 규모 줄이기·규

제 풀기·법질서 세우기) 정책과 신성장동력 발굴, 생활비 거품빼기 정책을 한걸음 추진, 7% 경제성장률과 5년 후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역설했다. 홍 의원은 “재벌 지배구조 개선, 무과업국가 실현, 내 집 갖기 최우선 추진, 경부고속도로 복층화, TCR 및 TSR망 구축 등을 통해 부자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원 의원은 “4천만 중산층 시대를 선언, IMF로 무

너지 중산층을 다시 살리겠다”고 주장했으며 고 의원은 “극단적 대결주의, 지역주의, 줄세우기, 사당화, 봉건적 영주 기득권 옹호 정치 한나라당을 혁파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의 하이라이트인 상호 토론에서는 이 전 시장의 핵심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공약, 박 전 대표의 일자리 페리 구상, 성장우선론 등을 놓고 5명의 후보 간 열띤 격론이 벌어졌다. 특히 이 전 시장의 한반도 운하 건설에 대해서는 4명의 후보 모두 그 환경 파괴 문제와 실효성 등을 집중 추궁하며 이 전 시장을 궁지에 몰았다. 또 경제정책에 있어 ‘성장이나 분배냐’의 논점을 놓고 이 전시장과 박 전 대표는 성장에 방점을, 나머지 세 후보는 분배에 방점을 찍는 듯한 모습으로 확연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5명의 주자들은 ‘경선 결과에 승복한다’는 내용의 승복다짐 선서를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朴 “문화수도 지원” 李 “호남운하 건설”

한나라당 대선 주자 5명은 이날 광주에서 열린 첫 정책토론회에서 광주·전남 등 호남 관련 공약과 발언을 쏟아냈다. 박근혜 전 대표는 기초발언을 통해 “정권창출의 대장정을 이곳 광주에

서 시작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면서 “호남의 숙원사업인 새만금 사업, 여수박람회, J프로젝트(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와 광주문화중심도 같은 사업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공약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또 이명박 전 시장은 “영산강을 직접 조사해보니 5대 강 중 가장 깨끗하다. 물을 맑게 하려면 운하가 돼야 한다. 호남 및 경부운하 하겠다”고 호남 운하 건설을 공약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전환사채 저가 발행 89억원 손실” 에버랜드 항소심도 유죄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사건 항소심에서 전·현직 대표이사 배임 행위를 저질러 회사에 최소 89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관련기사 5면> 서울고법 형사5부(조희대 부장판사)는 29일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을 공모해 회사에 970억원 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허태학·박노빈씨(전·현직 사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에버랜드 CB의 가격이

최소 1만4천825원이며, 이견희 회장의 자녀인 재용씨 등 남매가 인수한 주당 7천700원의 가격은 현저히 낮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받아들였다. 이견희 회장의 장남 재용씨는 1996년 10월 에버랜드 CB를 주당 7천700원에 120만주를 인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배임 행위를 저질러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손해액은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행위를 저질러 회사에 50억원 이상인 경우인 법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박노빈씨의 경우 1심에서 징역 2년

에 징역 3년이 나왔지만 항소심에서 약간 높아졌고, 두 피고인에게 모두 벌금형도 30억원씩 부과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의결 정족수 미달이어서 무효인 이사회 결의에 의해 7천700원이라는 현저히 낮은 가격에 전환사채를 이재용씨 등에게 배정해 에버랜드의 지배권을 넘겨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이사회는 정족수 미달로 무효인데도 무효인 이사회 결의에 터잡아 제3자인 이재용씨 등에게 전환사채를 배정한 것은 업무위배에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李청장, 한화 고문과 통화 시인

檢, 특별수사팀 구성...최기문 前청장 등 5~6명 출금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보복폭행 사건에 대한 수사가 한창 진행중이던 지난달 말 한화 고위 관계자가 이택준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청탁을 시도한 것으로 29일 밝혀졌다. 이택준 경찰청장은 이날 “지난달 29일께 고고 동기동창인 한화증권 Y 고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통화했

다”고 확인했다. 그는 “처음에는 김승연 회장 사건과 관련 없는 대화를 나누다가 저쪽에서 김 회장 사건 얘기를 꺼내길래 ‘네가 길 일이 아니다’라고 면박을 준 뒤 전화를 끊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지난 4일 국회 행정자치위에 출석해 김 회장의 보복폭행 사

건과 관련해 한화측 관계자와 만나거나 통화한 적이 없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보복 폭행에 대한 녹취·외압 의혹을 수사 의뢰받은 서울중앙지검은 29일 특수부 검사들을 대거 투입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미 경찰이 수사 의뢰한 최기문 전 경찰청장장과 김해배 서울청 수사부장, 장희곤 남대문시장 등 관련자 5~6명을 출금하고 계좌추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차장감사는 “한화 리포트 김모 감사의 한화 본사 사무실을 28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연희뉴스

盧대통령 “경찰청장 거취논의 순리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이택준 경찰청장의 거취 논란과 관련, “임기제 경찰청장의 거취문제는 정상인의 판단력을 갖고 봤을 때 의심할만한 어떤 혐의가 나왔을 때 논의하는 게 순리”라며 교체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한편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

날 경찰청을 방문, 이 청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경찰 내의 움직임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하고 나섰다. 박 장관은 29일 “경찰 조직 일부분에서 경찰 정책과 인사에 대한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출하는 데 경찰 조직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용납할 수 없는 사태”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

김행이 본 한나라 정책토론회 ▶3면

우양학원 장학 57년 역사와 전통

광주의 새로운 명문종합대학교

남부대학교
http://www.nambu.ac.kr

▶ 상암총보실 062-970-0114 ▶ T.062-970-0001-9

세게로 앞서가는 대학

전남과학대학
http://www.chunnam-c.ac.kr

▶ 상암총보실 1588-5051 ▶ T.(061)360-5000

BORYUNG
보령제약

50 BORYUNG
A healthy society is the only dream of Boryung
보령 창립 50주년

목이 칼칼할 땐, 용각산 쿨!



황사, 매연, 미세먼지로 인해 목이 답답하고 칼칼할 땐 용각산 쿨입니다.
물 없이 먹는 과일, 용각산 쿨은 칼칼한 목에 직접 작용합니다.

칼칼한 목을 시원하게~용각산 쿨!

황사

매연

미세먼지



▶ 기관내부에서의 점액 분비 증가와 점막염으로 가래를 제거해줍니다.

▶ 신뜻하고 시원한 복숭아향과 민트향, 두가지 향이 있습니다.

▶ 물 없이 먹는 과일이라 휴대가 간편하고 먹기 편합니다.

용각산 쿨
TV-CF



※ 반드시 의사, 약사와 상의하고 사용상의 주의 사항을 잘 읽은 다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심의필: 908-0500